

전자책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TTS(Text-To-Speech)는 콘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으로 현재 전자책을 포함해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TTS 기능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행본, 전자책, 오디오북 등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설 등의 경우(어문저작물)에도 콘텐츠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전자책)'과 '음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오디오북)'에 관해 별개로 권리 설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한 전자책 플랫폼(A사)이 전자책을 TTS 기능을 통해 읽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일부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B사)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해당 소송은 올해 6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B사

의 승소)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B사는 자신이 대상 콘텐츠에 관한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A사의 서비스가 위 배타적발행권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A사는 ▲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오디오콘텐츠(디지털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 A사는 TTS 기능을 제공할 뿐 직접 오디오콘텐츠를 복제·전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B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도서를 오디오콘텐츠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써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TTS 기능을 통해 생성된 파일(wav)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사의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대한 TTS 기능 제공이 B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A사의 TTS 기능 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A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사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 A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해 온 점, ▲ TTS 기능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역할은 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해 A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TTS'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는 점 등에 기초해 오디오콘텐츠를 복제·전송하는 주체를 A사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A사의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A사에 대해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서 대상 콘텐츠에 대해 TTS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침해정지청구 인용). 물론 이에 대해서는 B사가 상고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요한 것은 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콘텐츠의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방식(AI TTS 등)이 다른 권리자의 권리(배타적발행권 등)를 침해해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런칭 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 등의 추가적인 손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대형마트 옥죄더니 이제는 ‘살려달라’는 사회



기지 수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전국 곳곳의 매장이 폐점 수순을 밟자 인천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한 시민들과 노동자, 상인들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의 '적'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결국 정치권이 만들어놓은 낡은 규제가 업계를 옥죄면서 스스로 시장의 기반을 허물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수년째 인건비·전력비 등 고정비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시장 급성장으로 소비자 발길이 줄고, 정부의 각종 규제는 발목을 붙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다.

최근 국회에는 다시 '공휴일 의무휴업'을 법으로 못박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평일로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원상 복귀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제는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이다. 그 사이 유통 환경은 급변했다.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다.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의 연간 매출(약 37조원)을 모두 합쳐도 쿠팡 한 곳의 매출(약 40조원)에 못 미친다.

결국 '대형마트 쉬는 날'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보다 온라인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후폭풍이다. 물론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는 사실상 사업 구조와 투자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영향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매출 부진과 점포 구조조정이 이어지자 이제는 "지역 상권이 죽는다"며 시민들이 정부의 구제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를 옥죄던 사회가, 정작 그 반자리를 체감하자 "없으면 안 된다"고 뒤늦게 외치는 형국이다.

지금 필요한 건 유통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시대착오적 규제는 폐지해야 또 다른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7일 (음 9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48년생 자식에게 기업을 운영하게 하려면 공부를 시켜야 한다. 60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72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84년생 담배와 안정하지 않도록.



37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생하지 않다. 49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61년생 연장근무로 효과를. 73년생 결정 장애처럼 종일 우유부단. 85년생 해운업이나 해산을 관련 일은 길신하다.



38년생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50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를. 62년생 형제끼리 누가 잘하나를 따지면 무엇을 하겠는가. 74년생 공 같은 아내가 여우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86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



39년생 목인 기도를 해보라 일이 해결된다. 51년생 상술도 능력이다. 63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아침 일찍 나서라. 75년생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 87년생 친구인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패심한 머느리만 있다.



40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운수대길이다. 52년생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64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76년생 평소 예의 조직에서는 조직의 뜻을 따르자. 88년생 치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보험은 필수.



41년생 말의 흉수 시절 조심은 하자. 53년생 결혼이 필수시대였으나 혼자 가는 길. 65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77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89년생 체력으로 부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나야.



42년생 재물요구가 많은 자녀로 골치가 아플 것. 54년생 동료가 이기적이긴 하나 영업력은 우수. 66년생 맡은 일을 매듭짓는다. 78년생 어디서나 인간 세상의 원칙은 있는 법. 90년생 상대에게 위협을 받으려는 태도는 미움을 사게 되니.



43년생 배우자가 있으나 사돈과 박하다. 55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67년생 적법한 부동산을 사도록. 79년생 회사의 지시를 좇아 일하는 데 불만이 왜 많은 것인지. 91년생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라.



44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니 재물과 연관된다. 56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68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등해도 고인하지 말자. 80년생 남에게는 불공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은. 92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리듯 피곤을 가져온다.



45년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니 남 얘기로 썩지 말도록. 57년생 의사소통으로 일을 해결해야. 69년생 경청하면 일이 해결. 81년생 화를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보자. 93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



46년생 나이 보다 늙지는 않았으나 힘들다. 58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70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82년생 구습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서의 판단이다. 94년생 미운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47년생 증여를 해줬으니 축복이자 복덕이다. 59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71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83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95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듯 물은 소중하다.



김상회의四季 기도 효험 좋은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것이다. 선조들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할 것 없이 지극한 기도를 가리지 않았다. 그만큼 산다는 일의 어려움과 굴곡이 많았던 것이리라. 특히 일 년 중 이맘때 즉 추석을 보내고 난 후 음력 구월과 시월은 기도가 될 때마다 언급했듯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기약하며 하늘에 바램을 고하는 시기가 된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기로서 한민족의 나라를 건국한 시조 단군이 하늘에 고하고 나라를 연 시원을 정해 개천절이라 명명한 시기이니 보통 사람들 역시 직접 하늘에 고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오천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인간의 힘이 닿지 못하는 수승한 기운을 지닌 천지자연과 신명에 대한 경외와 소원하는 바를 전하기에 최적의 때였다.

소소하게 가정의 복덕과 재수발원을 소원하며 천지신명께 고사를 올리는 상달 고사 외에도 음력 시월 중에 드는 경술일(庚戌日) 기도는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필자의 스승님에게서 온 믿음이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입동과 소설 언저리에 경술일에는 반드시 경술(庚戌) 철야기도를 신도들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음력 11월이 되는 대설(大雪)이전에 드는 경술일은 시월 상달의 기운이 가장 극대화되는 날로 여겨져 기도발이 좋은 날이라고 했고 따라서 이날 만큼은 나를 위하든 남을 위하든 특히 나라의 안녕과 민생의 평안함을 우선으로 꼭 기도를 올린 것이다. 이날은 기운이 워낙 강하니 되도록 합동 기도의 형식을 취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조상님들 제사도 안 지내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구시대 산물이라고 무시하곤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2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